

느티나무 그늘처럼 편히, 읽고 배우고 나누고

- 참고 같은 서가, 취직 시험 준비에 여념없는 열람실, 비교적 싼 값의 문화생활 강좌.
- 사람들에게 익숙한 우리 도서관의 모습이다.
- 그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시민사회교육의 장, 지역 문화공간' 으로서의 도서관을 찾기로 쉽지 않다.
- 어린이도서관은 더 심각하다.
-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아이를 데리고 공공도서관을 찾은 부모는 무표정한 수위아저씨와 '정숙' 이란 표지판 아래 주눅이 든다.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려.)

그렇다면 도서관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현대성우상가지하 1층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관장 박영숙, www.neutinamu.org, 이하느티나무)에 가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6년 전이었다. 당시 5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였던 박영숙(40) 관장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티나무 그늘에서처럼 아이들이 편히 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고 생각했다. 기왕이면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일도 꾸미는 사랑방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었다. 어린이도서관이면 가능할 것 같았다.

아파트 쇼핑사가 지하를 임대한 박 관장은 서울의 큰 서점에 나가 손수 3,000권의 책을 골랐다. 흔히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10진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 책을 나누었다. 30장의 도면을 그려가며 공간도 철저하게 어린이의 입장에서 설계했다. 바닥을 깔아 난방을 하고, 아이들이 용기종기 모일 수 있는 골방도 만들고, 그네와 미끄럼틀도 만들었다. 꼬박 여섯 달 동안 밤잠을 설치가며 일에 매달렸다. 다행히 '느티나무' 를 홍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주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아이들을 앞세우고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읽고 싶은 책을 모두 사준다는 건 뱀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 책을 대기란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된다.)

하지만 책을 찾아 모여든 부모와 아이들은 느티나무에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동화 속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박 관장은 "날마다 수백 명씩 찾아와 책을 읽고 빌려가는 바람에 끝없이 일거리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밀린 일을 보면 손덜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화 속에서 주인공에게 마법 구슬을 전해주는 친구들처럼 언제나 누군가 나타나 손을 보태주곤 했어요."

도서관은 책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사회복지와 육아교육을 전공한 박 관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동아리, 각종 행사와 강좌, 방과 후 공부방, 자원 활동, 도우미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프로그램이 회원들의 손에 의해서 기획되고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현재 이곳을 다녀간 자원봉사자만 200명이 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성인 자원봉사자도 7,80여 명이나 된다. 책표지 싸기, 책 정리하기, 책 고치기 등 1주일에 1시간, 한달에 2시간 등 자신이 편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일을 돕는다. 물론 이들은 일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정신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박 관장은 어린이도서관이야말로 흔히 현대사회의 대안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모델이라고 강조한다.

"이곳 부모들은 '내 아이'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 역시 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마을 어른들과 눈을 맞추며 친근감을 쌓아갑니다. 책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아껴주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좋아서 도서관을 찾습니다.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하나 더 낳아 기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을. 하나. 도서관. 하나, 마을. 둘. 도서관. 둘.)

이제 박 관장의 꿈은 마을마다 하나씩 도서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사람들의 도서관에 대한 열망이라면 충분히



▲ 이곳 부모들은 '내 아이'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이' 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책도 좋아만 아껴주는 어른이 있어 더 도서관을 찾는다.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 이미 용인 상현지구 책사랑도서관, 시흥 동 은행나무도서관, 부천 동화기차, 광명 청개구리 그리고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 등이 느티나무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지금도 자자체, 종교단체, 주민단체 등 느티나무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1년이면 100여 개 단체에서 상담을 한다. 하지만 막상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탓이다. 박 관장은 "사람들은 특정 공간에 책만 꽂아놓으면 저절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어린이도서관은 '밀 빠진 독' 과 같다는 것이다.

특히 박 관장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묻는 게 있다. 상근직 사서를 고용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근직이라는 말에 당혹스러워 한다.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정규직 사서까지 필요할진 몰랐다는 것이다.

"도서관 관리와 운영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도서관리는 기본이고 행사와 동아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물만 봤지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99년에 시작해 올해 4월 개관 6년째를 맞은 느티나무는 '행복한 기억' 만큼 '작은 바람' 을 가지고 있다. 현재 40여 평인 도서관의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다. 개관 때 3,000권이었던 책이 이제 1만 3,000권으로 늘어났다. 아이들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하공간이라는 단점도 극복해야 하고, 더 많은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문화강좌도 늘리고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해야 하는데 공간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제공_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우리 마을 도서관은 우리가 가꾼다

도서관의 친구 Friends Of The Library 운동

박영숙 관장은 2003년에 느티나무에 모인 사람을 중심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작은 사립문고'가 오래도록 이 마을의 책 사랑방이 되도록 만들어보자는 바람과,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길을 찾아보자는 각오였다. 현장의 실무자들을 위해 '도서관학교' 라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어린이서비스연구팀' 도 꾸렸다. 어린이도서관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도서관 운동의 폭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으로 넓히기 위한 방법도 찾아가고 있다. 느티나무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 Friends Of The Library' 가 바로 그것이다. 도서관의 친구는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드는 시민모임이다. 경제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행사가 열릴 때면 자원 활동가로 나서 직접 진행을 돕기도 하고,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또한 정책결정자를 상대로 도서관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로비도 벌이고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기도 한다. 한마디로 '도서관 서포터즈' 다. 1900년대 초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 친구 모임이 만들어진 게 시초다. 그 후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그 활동이 꽃을 피우게 되었고 활동의 중심무대는 대학

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차츰 그 영역이 넓어졌다. 현재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등 여러 나라에서 '도서관의 친구' 를 도입,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느티나무문화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도서관의 친구' 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단 사무국 : 031-262-9124)



박영숙 느티나무문화재단 이사장 ▶